

# 금남지하상가 이번엔 침수피해

## 폭우에 하수관 터져 ... 차량 20대 고립·에어컨 작동 안돼 상인들 '아우성'

### 장마철 추가피해 우려

지난 5월 지반 붕괴사고가 발생한 금남지하상가가 지난달 30일 밤과 1일 새벽 내린 집중호우로 하수관이 터지면서 또다시 침수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날 폭우로 200t의 빗물이 붕괴현장인 지하주차장으로 유입돼 주차된 차량 20여대를 빼내지 못하는 등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일 새벽 5시에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지하주차장에 200t의 빗물이 유입돼 지하상가 일대의 에어컨 작동이 중단됐다.

이날 침수피해는 지난달 30일 밤과 1일 새벽 사이 61.5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지하주차장으로 향하는 지름 1m의 하수관이 터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광주시청 건설도과과는 아시아문화전당 공사인 D건설 측이 지난 5월 19일 지반 붕괴 사고 이후 막아놓았던 하수관이 파손되면서 빗물이 지하주차장으로 쏟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D건설 측은 하수관이 터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자 수중펌프 2대를 동원해 200t의 물을 모두 빼냈다.

또 전날 밤부터 당초 예정에 따라 차량 견인작업을 벌여 5월 지반 붕괴 당시 고립된 차량 55대 중 35대를 견인했다. D건설은 또 나머지 20대의 차량도 이날 밤 9시30분께 모두 견인조치하는 등 피해 복구 작업을 벌였다.



**몰바다** 1일 새벽 광주에 61.5mm의 집중호우가 내린 가운데 광주 금남지하상가 주차장 전체가 20cm가량 침수되자 아시아문화전당 공사 관계자들이 펌프를 이용해 물을 빼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하지만 지하상가 냉방기를 빗물로 인한 감전을 우려해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상당수 점포는 물론 고객들이 무더위에 시달렸다. 일부 상인들은 냉방기 가동이 중단되고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자 추가 피해를 우려 했다. 붕괴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시공사와 광주시청이 '정밀안전진단'을 이유로 이렇다할 보수공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D건설 측은 지난 5월 지반 붕

괴사고 이후 일반 안전조치로 관벨로 30m 가량의 펜스를 만들어 막아왔을 뿐 다른 공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침수로 지하상가 냉방기 가동이 중단되면서 금남지하상가 1공구·2공구 전체가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아 상인들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하상가에서 수영복 매장을 운영 하는 임모(44·광주시 동구 동명동)

씨는 "지난 붕괴사고 이후로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오늘 침수로 인해 에어컨까지 고장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는 박모(여·39)씨는 "붕괴 사고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시공사 측에선 뭘 하는지 모르겠다"며 "비가 올 때마다 침수피해가 난다면 장마철에는 무서워서 어떻게 장사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화순 역대 인사비리

## 광주지검, 군수 선거참모 등 2명 구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완준 화순군수의 재판 과정에서 역대 인사청탁 사건이 또다시 불거져 전 군수의 선거참모 등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1일 인사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건네받은 전 군수의 선거참모 오모(63)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인사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화순군 공무원 7명으로부터 모두 2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1억7000만원이 오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돈을 건넨 공무원이 실제 인사상 혜택을 봤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전 군수의 핵심 참모 역할을 한 오씨가 유권자들에게 최고기

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하던중 거액의 '뒷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 오씨는 지난 3월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번 사건으로 지난달 25일 재차 구속됐다.

검찰은 또 간병인 신분인 조씨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오씨가 조씨를 매개로 돈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돈의 성격과 흐름을 파악 중이다.

한편,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5월 화순지역 번영회장 6명에게 모두 700만원을 건네고, 유권자에게 공짜 식사와 소고기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나원침 (8062) 김장두



# 車수리비 왜 비싼가 했더니...

## 불법 임대·무등록 정비업자 등 112명 검거

### 광주 5곳 중 1곳 불법영업

경찰이 자동차 수리비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되는 차량 수리업계의 불법리한 도급구조와 정비업소 불법 임대 관행 등에 '철퇴'를 가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자동차 정비업소를 불법으로 임대해 준 조모(41)씨 등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 31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또 무등록 상태에서 정비업체로부터 장소만 임대받아 불법 영업을 해온 판공·도장업자 전모(40)씨 등 하청업자 50명 등 모두 1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006년 광주시 서구에 정비업소를 차려놓고 전세 등 5명으로부터 보증금 4700만원과 월임대료 720만원씩을 받는 등 모두 2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하청업자 전씨 등은 정비업체 측에 거액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건네는 조건으로 각각 수리 영역 및 구역 을 나눠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불법 하도급 과정이 차량 수리비를 상승시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하도급업자의 입장에서 보증금은 물론, 매

달 수백만원의 임대료를 내기 위해 수리비를 높여서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찰조사 결과 광주 5개 기초자치단체에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소 143곳 가운데 31곳(21.6%)이 불법 임대차 행위로 입건됐다. 광주의 정비업소 5곳 가운데 1곳은 당국의 단속을 비롯 불법 영업을 해온 것이다.

경찰은 차량 수리업계에 대한 단속 업무를 소홀히 한 5개 구청 담당 공무원 17명을 조사한 뒤 관계 기관에 시정행위 통보 조치할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국고보조금 편취 방조

## 수협직원 4명 적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어민들이 국고지원금 4억여원을 빼돌리도록 도운 수협직원들이 적발됐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수산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국고보조금 편취를 방조한 거문도수산협동조합 전 유통사업과장 등 4명을 징계하고, 국고보조금을 부당수령한 어민 등 19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을 농식품부에 권고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차량 절도 20대 검거

광주남부경찰은 1일 주차된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난 최모(24·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4일 새벽 광주시 남구 월산동 김모(여·49)씨의 집 앞에 세워진 김씨의 승용차를 훔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31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자전거로 PC방 25곳 돌며 지갑털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광주 지역 PC방 25곳에서 손님들의 지갑을 털 30대가 훔친 신분증으로 ID를 만들어 게임을 하다가 경찰에 걸렸다.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유모(38·광주시 남구 양림동)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한 PC방에서 몰래 손님 최모(여·30)씨의 지갑을 훔쳐 달아나는 등 25곳의 PC방에서 4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유씨는 범행 때마다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한 경찰관계자는 "차량에 비해 행적을 찾기 어려운 자전거를 이용, 범행해 검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신안 60대 낙뢰 맞아 숨져

### 염전에서 배수작업 하다

염전에서 배수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낙뢰에 맞아 숨졌다.

1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8시50분께 신안군 모 염전에서 작업중이던 정모(63)씨가 낙뢰를 맞았다. 정씨는 낙뢰를 맞은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정씨의 아내(63)는 "함께 배수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생겨난 낙뢰에 맞아 쓰러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

사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차명계좌로 거액 빼돌려

## 영농조합법인 대표 입건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차명계좌를 통해 법인 자금을 관리하면서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거액을 빼돌린 함평군 모 버섯재배 영농조합법인 대표 윤모(39)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번개 치면 샤워·설거지 하지마세요”

### 낙뢰사고 대처법

대기 상하층의 기온차가 많이 벌어졌을 때 대기가 불안정하게 되면서 구름이 급작스레 발달한다. 구름 아래부분의 음전기와 지상의 양전기가 격렬하게 합쳐져 구름 위쪽의 남은 양전기가 지상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것이 낙뢰다.

낙뢰가 발생할 때 순간 온도는 최고 3만도(°C)며, 전류 값은 최고 2만A(암페어)에 달한다. 2만A는 100W 전구 7000개를 32시

간 켜 줄 수 있는 에너지다. 몸에 쇠붙이를 지니지 않으면 낙뢰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일단 비를 맞아 몸이 젖어 있다면 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자동차나 실내로 피하는 것이 좋다.

낙뢰가 칠 때 집에 있을 경우에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뽑아 두고, 안테나 또는 전선에서 1m 이상 떨어져 있는 것이 안전하다. 또 샤워, 설거지 등 물과 접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한다. 키 큰 나무 밑도 매우 위험하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아버님, 어머니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니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니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니님 사랑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최정자원 Q10 영유  
 동산점영광채

국립현대미술관  
 큐텐